

정글에 사는 강한 호랑이

12세 남

정글에 사는 호랑이가 있다

그 호랑이는 먹을 먹이를 쫓고 있다.

사냥꾼이 총을 쏘도 피하는 무적 호랑이

이 호랑이는 하얀 털이 있는 백호.

이런 용감한 호랑이도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만약 없다면 어떻게 소통할까?

호랑이는 왜 작은 동물을 먹을까?

자기들도 자기보다 큰 동물은 겁이 나나?

야생 강아지

12세 남

우리집에는 어제까지 숲에 살다온 강아지가 있다
숲에서 살다보니 사료는 안먹는다 오히려 개미를 좋아하고
또 개미를 먹는다 나도 강아지처럼 개미를 먹는다

숲에서 살다보니 몸이 더럽다 깨끗이 씻겨보니 줄무늬는 검은색이고
몸은 갈색이다 나도 강아지처럼 샤워를 한다

나는 강아지 종을 찾아보았다 그 강아지는 시바견이다
숲에서 살다보니 시바견은 냄새를 잘맡는다
나도 강아지처럼 냄새를 맡아본다 킁킁!

오늘 저녁은 라면 죽인가보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죽

강아지

12세 여

강아지 주인의 알림시계

강아지가 주인을 일어나게 만들면 자상하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지

그럼 둥글둥글한 꼬리를 흔들며

산책가자고 하지

달리면서 주인을 쳐다본다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둥글한 물건을 던져달래

땀뽕뽕 흔들면서 밤까지 놀지

집에 들어오면 쿵쿵자지

귀여운 얼굴로 말이야

우리 고양이

12세 여

복슬복슬한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
집에서 나와 누워있는 고양이

푸른 눈으로 노을을 보며 좋아하는 고양이
간식을 주자 야옹하며 좋아하는 고양이
내 얼굴을 핥으며 좋아하는 고양이

커져도, 커져도 귀엽기만 한,
우리 고양이

늑대만의 시간

13세 여

어두운 밤하늘에
달이 뜬 깜깜한 밤이 되었다.
늑대만의 시간이 되었다.

동그란 눈동자와 찢어진 눈,
뽀족한 귀를 가진
늑대가 달빛을 받으며 자유롭게 달린다.

검은 털에 숨겨둔
하얀 이빨과 발톱으로
달빛 아래에서 다시 사냥을 한다.
늑대의 긴밤은 이렇게 다시 지나간다.

범고래의 등에 탈 수 있다면

12세 남

범고래의 등에 탈 수 있다면
범고래의 까맣고 반짝거리는 눈이
날 바라볼 것이다.

범고래는 백야에도 눈이 부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범고래는 날 태우고 빠르게
헤엄칠 것이다.

시원한 바닷물이 내 피부를 간지럽힐 것이다.

그의 등에 앉아 그들의 사냥을
눈에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매끄러운 피부를 만지며
그와 함께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

14세 남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
노을 지는 저녁 나 홀로
바다를 횡단한다.

기약 없는 여행이지만,
그저 자신의 운명을 따를
뿐이다.

심심할 땐, 바다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힘이 들 땐, 따뜻한 남쪽 섬을
생각하며 끝없는 바다를
횡단한다

언젠가 도착할 따뜻한
남쪽 섬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날기
시작한다.

구두 소리

13세 여

또각또각 구두 소리, 달려갔을 때 문은 닫히고 차갑게

식은 문 앞에

나만이 남아있네.

또각또각 구두 소리, 들릴 때까지 상상하네. 해질녘

구두 소리

언제 들리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네

언제 오려나, 오늘 내일 언제 오려나.

또각또각 구두소리, 꼬리 흔들며 달려간다.

언제 열리나, 언제 열리나. 아직도 문앞은

차갑기만 하네.

고양이

16세 여

내 고양이는 부드럽고 좋은 냄새가 난다.

고양이는 이불 속에서 창문 밖을 보며 누워있다.

모두 잠든 밤에 이불 속에서 고양이의 눈은 동그랗고
코는 분홍색이다.

고양이는 까슬까슬한 혀로 내 손을 만져주고
동그란 눈으로 나를 본다.